



영과 육의 전쟁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6년 7월 28일

이스라엘은 예즈볼라와의 전쟁 17 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북부 이스라엘에는 매일 100 발 이상의 카슈샤 로켓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비군 3 개 사단을 소집하였고, 시리아는 군의 경계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이스라엘 군 중사령관 알루스는 위장 통증으로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참고할 사항들을 전합니다.

1. **시편**- 이브리어로 로켓 미사일을 '테엘림' 이라고 하는데, 시편은 '테일림' 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로켓(테엘림)에 시편(테일림)으로 대응한다' 는 표현을 합니다. 이번 주에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랍비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시편 83 편을 읽어야 함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을 때, 아일랜드의 안습지에서는 1,000 년 정도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라틴어 성경이 시편 83 편이 펼쳐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2. **정당화 된 전쟁**-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맞서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즈볼라가 공격에 왔을 때, 레바논에는 이스라엘 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즈볼라는 정당화 이유도 없이 국경을 넘어 우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번 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90%가 우리의 군사 대응이 정당하다고 답했습니다. (80%는 이스라엘 군이 잘하고 있다고 했으며, 70%는 올메르트 총리가 잘 이끌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60%는 국방부 장관 페레스가 잘 감당하고 있다는 답을 했습니다.)

3. **도덕적 딜레마**- 이스라엘은 이번 주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민간인들을 해치지 않으려 주의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브리어 신문 1면 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라피 기나트, 예디오투) “어떤 것이 더 옳은가? 남부 레바논 인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에 부대의 의생을 감수해야 하는가? 전쟁이 더 길어지고, 우리 땅에 떨어지는 미사일 수가 늘어날 지라도 병력을 제한해야 하는가? 아니면 병력을 증강시켜서 윤리 문제는 제쳐 놓고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우리의 저지력을 강화해야 하는가?”

4. **재정적 어려움**-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백만에 가까운 인구가 전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광객이 그쳤고, 모든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경제는 정체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재정부의 이번 달에 일터에 나갈 수 없게 된 북부 노동자들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5. **국제 평화유지군**- 2004년 9월 2일, UN 안보리는 1559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셋째 문단은 모든 레바논, 비 레바논 무장조직(에스볼라를 의미)을 해산 및 무장해제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UN은 그 후 UNIFIL 군을 보내 이 중요한 안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UN 군은 대규모 무기 증강과 에스볼라 군 참호 구축의 덩개이자 인간 방패가 되었고, 결국 현재의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6. **아틴 전쟁**- 1187년 7월 4일, 티베리아스에서 서쪽으로 수 km 떨어진 안 언덕에서 약 2만 명 규모의 유럽 십자군이 팔라크 앳딘(살라딘) 휘하의 아유비드 왕조 이슬람 군에 대항하여 진격했습니다. 십자군은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적들에 둘러싸이게 만들어 타오르는 중동의 태양 아래 전쟁에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살라딘의 군대는 그들을 궤주시키고 중동 전역의 통치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도 말이요! 이 전쟁은 중세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살라딘은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서구 ‘기독교’에 대한 이슬람 군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싸워 이겨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하려 하는 나스랄라가 자신을 현대의 살라딘으로 보고 있다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살라딘 심리는 중동 분쟁에 아직까지도 긴 그림자를 들고 있습니다.

7. **골리앗의 겨주**- 다윗은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삼상 17:45) 비슷한 관점에서, 제 의견으로는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겨주했습니다. 나스랄라를 없애는 것이 현재의 분쟁을 가장 빨리 끝내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일 것입니다.

8. **영적, 육적 전쟁**– 많은 이들이 저보다 영적 전쟁에 대한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유대적, 혹은 이스라엘의 배경으로 말씀을 설명하여 군사 전쟁이 영적 전쟁과 연관 되어있다는 점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신약의 관점(엡 6, 고후 10)은 군사적 갈등을 ‘대제’ 하진 않습니다. 많은 경우 둘은 함께 갑니다. 신약은 갈등 이면에 있는 영적 세력에 대한 계시를 줍니다. 이 두 상황은 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삼아 5:24, 왕아 6:17, 단 10:3,13)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데에 ‘대제 신약’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군사 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과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예언과 이스라엘의 군사 전쟁 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9. **공의로운 심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그 분을 찬양하는 데에 익숙하며, 그것이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분의 심판을 인해서도 찬양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심판에는 그 분의 공의와 거룩, 능력이 드러납니다. 군사 분쟁을 비롯한 그 분의 심판을 인하여 그 분을 찬양할 때, 주님께선 영광 받으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더라” (계 15:4)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계 16:5,7) 마지막 때의 완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중 하나가 그의 심판을 찬양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10. **질적 변화**– 하나님은 때로 그의 백성들을 불러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저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국민들이 애국심과 자기 의생을 보이며, 다른 이들을 섬기고, 친절하며 진지하고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동기 부여가 되어 낙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연합합니다. 정치적 분열과 비판의 영이 그쳤습니다. TV에서 생적 부도덕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세계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일어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에 이러한 일이 생기기를!

11. **더 큰 갈등**– 다시 한번 부시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유럽과 UN의 세력에 대항하여 일어섰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국제 사회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비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시를 비난해온 크리스천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가 떠났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에스볼라는 시리아와 이란의 군사적 무기입니다. 그들은 곧 극단 이슬람의 ‘지아드’ 운동을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지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을 대신에 더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또한 복음주의 세계를 대신에 굶은 일을 애내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당신은 어쩌면 이 분쟁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현상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그저 사라져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12. **승리의 필요성**– 영적 전쟁의 또 다른 중요한 면이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테러리즘과 지하드 세력은 철저히 쳐부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승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패배주의적, 인본주의적 생각은 모두 버리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 인들을 이겨냈습니다. 손이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출 17:10~13) 결과를 좌우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모세의 손이 들려졌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고정’ 되었다고 알 때 히브리어 원문에서 쓰인 단어는 **에무나**인데, 직역하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승리에 이를 때까지 기도와 찬양, 예언으로 손을 높이 고정시킵시다.

번역: 고병연